

# GIST, 설립 30주년 기념 '후원의 밤' 성황리 개최

- GIST 후원자 200여 명 참석... 30년 후 더 큰 성장 위해 힘 모으기로
- 시설 및 장학금 기부 수혜 GIST 학생들의 영상 편지 감동 선사



▲ GIST는 (재)지스트발전재단과 함께 8일(금) 오후 오룡관 1층 로비에서 GIST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'후원의 밤'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,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(재)지스트발전재단(이사장 김해명)과 함께 8일(금)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오룡관 1층 로비에서 **GIST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'후원의 밤'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.**

코로나로 인해 약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 'GIST 후원의 밤'에는 **후원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** GIST의 '30년 성장'을 함께 돌아보고 '30년 후' GIST가 더 큰 성장을 이룩하는 데 **모두 힘을 모으자고 다짐하며 친교와 단합의 시간**을 가졌다.

신임 GIST 발전후원회장으로 선임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(현 대한석유협회 회장)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"지난 3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 온 **GIST가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 발전후원회는 GIST를 뒷받침하겠다**"는 각오를 전했다.

(주)에코월드팜 오석중 회장, (주)우성정공 박화석 회장, (주)한영피엔에스 김윤섭 회장, (주)한국쓰리축 유구현 회장을 비롯해 GIST 임기철 총장(1억 원)과 김상돈 교학부총장 등 처장단(8,660만 원)이 4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이날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.

임기철 총장은 "GIST '30년 성장'에 크나큰 힘을 보태어 주신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든든한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**GIST는 더 나은 사회·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국가와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**"고 말했다.



▲ 지난 8일(금) 오룡관에서 개최된 GIST 설립 30주년 기념 '후원의 밤' 행사에서 GIST 임기철 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.

김해명 (재)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은 "GIST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 과학을 선도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**지스트발전재단도 적극 협력하겠다**"고 말했다.

한편 이날 상영된 발전기금 홍보영상에서는 후원자의 시설 및 장학금 기부의 도움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**GIST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 편지를 전해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.**